

# 2025 세계양궁선수권 광주 유치 9부 능선 넘었다

### 경기장·호텔·시민열기 등 전반적인 준비상태 만족 세계양궁연맹 실사단 호평

2025세계양궁 선수권대회 광주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세계양궁연맹(WA·World Archery) 실사단은 역대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를 연이어 배출한 '양궁 메카' 광주 시민의 양궁 열기와 경기장 시설 등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세계양궁연맹 실사단과 대한양궁협회 주요 관계자는 지난 21~22일 현지 실사를 마쳤다. 토마 오베 실사단 대표는 경쟁 도

시인 스페인 마드리드에 대한 정보나 광주평가 결과에 말을 아꼈지만, 전반적인 준비 상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전했다.

예선 경기장으로 사용될 예정인 국제양궁장은 두 차례 방문해 꼼꼼하게 살펴봤으며 미디어 존, 심판실, 조직위 사무실 등을 배치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결승전 후보지로는 월드컵 경기장보다 5·18 민주광장이 개최 도시의 의미와 역사성을 살리기 좋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를 치른 도시로서 개최 역량과 전반적인 준비 상황에도 좋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1984년 서향순 선수부터 기보배 선수, 도쿄올림픽 금메달

3관왕의 안산 선수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연이어 배출한 도시라는 점도 긍정적인 점수를 더했다는 게 광주시의 분석이다.

실사단은 다만 출전 선수가 많은 미국, 유럽 등에서 광주까지 직항로가 없다는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는데, 광주시는 2015하계U대회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대회에서도 별도 수송버스 운행 및 KTX 등을 통해 불편함 없이 대회를 완벽히 치러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실사단 대표인 토마 오베 실사단 대표는 "세계양궁연맹은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엘리트 선수권대회를 넘어 궁극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스포츠 축제, 양궁인구의 저변 확대될 수 있는

대회 레거시에 큰 관심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광주시는 관련 자료를 보완해 세계양궁연맹 측에 추가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세계양궁연맹 실사단에 광주를 2025세계양궁선수권 대회를 완벽하게 치를 수 있다는 확실한 인상을 충분히 심어 주었다"면서 "다음 달 초 세계양궁연맹 집행위원회 최종 결정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관련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지는 실사단 평가 등을 거쳐 내달 초 WA 집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광주시와 스페인 마드리드가 2025년 대회 개최지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순천, 대한민국 1호 정원도시로 만들겠다"

#### 김영록 지사, 도민과의 대화

김영록 전남지사가 23일 순천시를 방문, "국가 정원 1호인 순천만정원을 중심으로 펼쳐질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순천을 대한민국 제1호 정원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순천을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고 모든 시민이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지속 가능한 '30만 정원도시' 육성, 동부권 거점도시이자 생태문화도시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국내 최초로 '지구의 정원 순천만'을 주제로 열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방문객 440만명, 경제적 파급효과 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박람회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30개국 80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도민과의 대화에서 강세웅 사이영협동조합 대표는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위드 코로나 이후 의정협업체 재개를 기대했으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과대학 설립 논의 재개가 지연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고 있지만 유치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과 관련 시행령·조례제정 등 후속조치에 조속히 나서달라는 건의에 대해 김 지사는 "행안부에서 초안을 수립해 현재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시군·유족·전문가·시민사회단체의 논의를 통해 1차 의견을 제출했고, 내달 중 공청회를 개최해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인권작품 공모 18개 우수작 선정

전남도가 인권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한 2021 인권작품 공모전에서 아동과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를 잘 표현한 작품 18개를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2021 인권작품 공모전은 인권의 가치와 관심을 높이고 생활 속 인권 감수성 향상을 주제로 '인권 동영상', '인권 포스터', 2개 분야 3개 부문으로 진행했다.

지난 10월 15일까지 한 달여간 광주, 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총 40여 점의 작품을 접수해 18개 우수 작품을 뽑았다.

공모전 심사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인권 가치 지향성, 창의성, 작품성,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했다.

동영상 분야 최우수상은 충남 공주시의 최미성 씨가 수상 영예를 안았다. 최씨는 '노인 인권-우리도 언젠가' 작품을 통해 노인 인권에 관한 내용을 샌드아트로 표현했다. 노인 빈곤, 고독사, 자살, 학대 등 사회적 약자인 노인 인권에 대해 생각하고 좀 더 노인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포스터 분야 최우수상은 아동·청소년부의 경우 임은영, 차지민(부산 대덕여고) 학생이 '인권에 피라미드는 없다' 작품으로 수상했다. 일반부는 윤소연(서울시 강남구) 씨가 '갑&갑' 작품을 통해 모두의 인권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갑질과 이러한 사회문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표현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수상작은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2월 열리는 제3회 도민 인권문화증진 행사에서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수상작은 전시할 계획이다. 또 각종 인권 홍보 및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예숙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출품작이 아동·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차별 등 다양한 분야 인권 문제를 잘 표현하고 있어 인권 존중 문화를 넓히는 좋은 홍보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겨울왕국 된 무등산 23일 오전 광주 무등산국립공원에 눈이 내려 멋진 설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시, AI 활용 스마트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 25일 '재난안전산업 컨퍼런스'

#### 코로나 후 재난관리 방향 등 논의

광주시는 "25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2021재난안전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난관리 패러다임 변화와 AI융합산업 진화 대응전략'을 주

제로 광주시 주최·광주전남발전연구원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된다.

이종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장이 '코로나 이후 재난환경 변화 및 재난관리방향'을 기조발제하고 ▲AI기반 재난안전 공통플랫폼 구축 방안(김종원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대학원장) ▲포스트 코로나 AI시대 재난안전 혁신체계 구축과 대응전략 (고려대학교 최상욱 교수) ▲효과적인 재해영향평가를 위한 AI기술 적용(유홍식 성균관대 교수) ▲AI기반의 광주형 재난안전관리

(송창영 광주대학교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또 대학·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 5명이 참석해 재난안전산업과 4차 산업의 다양한 융합사례를 공유하고, 광주시가 직면한 안전관련 이슈와 대응방안 등 재난안전산업의 미래전략과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박남언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광주에서 중점 육성하고 있는 AI 기술을 지역 재난안전에 활용하면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첨단화와 재난안전 산업 육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재난안전영역에 AI등 스마트 기술 접목으로 스마트한 안전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담양 육용오리농장서

#### AI 의사환축 발생

담양 대덕면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발생해 전남도가 긴급 조동방역 조치에 나섰다.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은 나주, 강진 등에 이어 4번째다.

이번 의사환축 발견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감화조치로 육용오리농장에 대해 오리 출하 시까지 4회 실시하는 사육단계별 정기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 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전남도는 항원 검출 즉시 가축방역관과 조동방역팀을 현장에 보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육용오리 1만 마리를 고병원성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예방적 살처분을 했다.

검출농장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정해 이동을 통제하고 집중소독을 하고 있으며, 도내 전 가금농장에 SNS로 상황을 즉시 전파해 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현장방역점검반 10명을 상시 투입해 농장을 무작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소로 36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http://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